

차이가 심하여 주목을 받아 왔으며 분화도에 따라 분화암과 미분화암으로 분류하며 이들은 생물학적 양상이 달라 별개의 암이 아닐까 의심되기도 하였다. 특히 미분화암에서는 그 병인으로써 Epstein-Barr virus가 의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화암에서도 혈청검사상 EBV 감염의 증거가 있어 모든 비인강암에서 EBV가 관여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다. 또한 상습발병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비인강암환자에서도 EBV에 대한 항체가 높게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다. 저자들은 비상습 발병지역인 한국의 비인강암환자에서 EBV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원자력병원에서 조직검사상 비인강암으로 확진된 24례(WHO type 1: 4례, type 2: 13례, type 3: 7례)를 대상으로 하였고 대조군으로는 다른 이유로 비인강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비인강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13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대상 환자의 파라핀 고정조직을 6 μ 의 절편으로하여 파라핀을 제거한 후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원하는 부위의 DNA를 증폭한 후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소식자(radiolabled probe)를 이용하여 증폭된 DNA가 EBV DNA임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전체 비인강암 환자군에서 EBV DNA 양성율은 87%였다.
- 2) WHO 1형은 100%, 2형은 92%, 3형은 70%의 양성율을 보였다.
- 3) 정상대조군의 경우 양성율이 23%(13례중 3례)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한국인의 비인강암도 EBV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자세한 발병 기전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정상인에서도 EBV 양성인 경우가 있어 건강보존자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 21 -

설암의 임상적 고찰

설암은 두경부 악성종양중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주로 50대 이후의 남자에 병발하나 근래에는 여성 뿐 아니라 젊은 연령층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타 부위의 악성종양에 비하여 예후가 비교적 불량한 편으로 이는 혀 뿐만아니라 구강저부가 대부분 근육으로 구성되어 종양의 파급을 막아줄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불분명하고 종양의 정확한 침범정도를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소침윤이 의외로 심한 경우가 많고 경부 임파절 전이의 빈도가 높아 국소 및 경부의 재발이 많기 때문이다. 연자들은 설암의 임상적 경과 및 치료 성적을 규명하고자 설암으로 1987년 초부터 1990년 말까지 만 4년간 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관찰중인 32례를 대상으로 임상증상, 발생부위, 병기, 수술방법, 합병증 및 병기별, 부위별 생존율을 비교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1) 부위별 빈도는 설 중간 1/3이 17례(53.1%)로 가장 많았으며 전방 1/3 11례(34.4%), 설근부 3례(9.4%), 설배부 1례(3.1%)의 순이었다.
- 2) 병기별 분포는 육종 2례를 제외한 전체 30례중 Stage IV, II가 각각 10례(33.3%), Stage I 9례(30.0%), Stage III 1례(3.3%)의 순으로 조기암이 (Stage I 및 II)이 전체의 63.3%를 차지하였다.
- 3) 경부임파절 전이는 육종 2례를 제외한 전체 30례중 10례(33.3%)에서 나타났으며 양측성의 경우는 1례(3.3%) 뿐이었다.
- 4) 수술방법은 설 부분절제술만을 시행한 경우가 16례로 가장 많았으며 설 부분절제술 및 일측 경부곽청술을 시행한 례가 6례, Commando 수술과 대흉근 근피판에 의한 구강저부의 재건이 6례, 설 부분절제술, 경부곽청술 및 대흉근 근피판에 의한 구강저부의 재건이 3례 등이었다. 또한 전례에서 술후 방사선조사를 시행하였다.
- 5) 술후 합병증은 구강저부를 대흉근으로 재건한 9례중 2례에서 근피판의 부분적 패사가 있었

으나 구강피부 타액루는 없었고, 그의 특기할 만한 합병증은 없었다.

6) 국소재발 경부재발 및 원격전이는 각각 2례에서 관찰되었다.

7) 육종 2례를 제외한 편평상피암 30례의 2년 생존율은 79%였다.

— 22 —

성문상부암의 임상적 특성 및 치료성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찬우 · 정광윤 · 최종욱

성문상부암은 후두 점막을 따라 하인두나 구인두를 침범하거나 전후두개강(preepiglottic space)이나 부성문강(paraglottic space)을 침범하여 후두연골 혹은 후두 주위구조를 침습하여, 병기가 진행된 후에 발견되거나, 점막하 임파조직이 풍부하여 초기에 경부전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경부전이가 없는 경우도 병리조직학적으로 임파전이절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원발병소와 경부임파절을 포함한 포괄적인 치료를 시행하나 성문암에 비하여 그 예후는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에 저자들은 성문상부암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6년간 치험한 후두암 45례 중 성문상부암 24례(남녀비 2.4 : 1, 평균연령 56.7세)의 임상적 특성 및 치료성적을 분석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 24례중 제 2 병기가 6례(25.0%), 제 3 병기 6례(25.0%), 제 4 병기 12례(50.0%)이었으며, 원발부위는 설골상부 13례, 설골하부 11례이었다.

2) 전 레에서 수술 및 술후방사선치료를 하였고, 1례에서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3) 임파전이절이 없었던 14례중 13례에서 예방적 경부청소술(elective neck dissection)을 시행하여 4례(30.8%)에서 병리조직학적인 경부임파절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임파전이절이 있었던 10례(N1 1례, N2 5례, N3 4례)는 근치적, 경부청

소술(radical neck dissection)을 시행하였다.

4) 추적관찰결과 무병생존례가 16례(66.7%), 유병생존례 2례(8.3%), 유병사망례 5례(20.8%)이었다.

5) 총 24례중 재발한 경우는 원발병소 4례(16.7%), 경부임파절 3례(12.5%), 이차암 3례(12.5%)이었다.

6) 총 24례의 치료결과 3년 생존율이 58.4%, 5년 생존율은 25.0%이었다.

이상의 성적에서 성문상부암은 경부임파전이가 많고 이차암의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아, 치료전 침범범위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포괄적인 치료로 그 예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 23 —

하인두암의 치료성적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병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광현 · 성명훈 · 정원호 · 유원석

하인두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은 두경부에 발생하는 각종 종양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종류의 치료 방법이 소개되어 왔으나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저자들은 1986년 1월부터 1991년 8월까지 본원 이비인후과나 내과, 치료방사선과에 내원한 하인두암 환자중 수술 또는 항암약물요법, 방사선요법을 받고 추적이 가능하였던 30례를 대상으로 복합치료군(항암약물요법+방사선요법)과 수술 및 술후방사선요법을 받은 2개의 군으로 나누어 치료성적을 비교하여 보았다. 복합 치료군(12명)의 평균 추적기간은 18.9개월 이었고 수술 및 술후 방사선요법군(12명)의 평균 추적기간은 20개월이었다. 복합치료군은 수술 및 술후 방사선요법군과 비교 시 유사한 생존률을 보여 주었다. 방사선요법 혹은 항암약물요법만을 단독으로 시행한 6례는 수술을 거부하였거나 수술하기에 전신상태가 좋지않은 경우였으며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